

근현대 상해 도시계획 변천의 역사

-최신 연구성과와 자료를 중심으로-

손안석*

I. 들어가는 말

II. 구미의 도시개발과 상해 조계지

III. 중국인에 의한 대상해도시계획

IV. 일본인의 상해 지배와 도시계획의 왜곡

V.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의 상해 도시계획

VI. 맺는말
-개혁개방 이후 상해의 도시계획

■ 국문초록

본고는 근대 상해의 역사 변천을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최신의 연구 성과와 새로운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한 것이다. 상해 조계지 설정 후의 초창기 도시계획은 구미 열강이 주도권을 잡은 공부국(工部局)이 도로 건설, 경찰, 위생, 교육, 세금 징수 등 거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었다. 종래의 상해사 연구의 많은 부분은 이러한 공부국의 활동을 분석하는 것이었으나, 아직도 활용하지 않은 자료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공부국의 공식 공보잡지로 간행된 『The Municipal Gazette』 나 상해에서 발행된 영자신문을 대표하는 『The North 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 등도 아직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자료이다. 상해사 연구에서 상당히 연구가 진척된 분야는 상해의 도시건축에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긴 헝가리 출신의 건축가 휴덱(Laszio Hudec)과 관련된 것이다. 상해의 도시발전에서 중국인이

* 孫安石. 일본 가나가와대학(神奈川大學) 교수. e-mail: sona0001@hotmail.co.jp.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중국인의 등장을 도시 중간층의 등장으로 설명하려는 연구가 이와마 가즈히코(岩間一弘)에 의해 이뤄졌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 중간층의 오락과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연구가 손안 석에 의해 이뤄졌다. 최근 발간된 상해 도시사 연구의 자료집으로 주목 받는 것은 상해시성시계획설계연구소가 편집한 ‘대상해도시계획’이다. 이 자료집은 1920년에서 1940년대에 걸쳐 추진된 대상해도시계획의 회의 기록과 각 단계별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다.

주제어 : 상해, 도시계획, 휴덱(Hudec), 공부국(工部局), 대상해도시계획, The Municipal Gazette, The North 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

■ Abstract

Modern History of Shanghai Urban Planning through the Latest Research and Materials

SON Ansuk

(Kanagawa University, Japan)

Immediate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Settlement in Shanghai, Western powers interceded control of city planning. At the same time, the Shanghai Municipal Council (工部局) continued to fully manage road construction, policing, sanitation, education, and tax collection. However, most history research on Shanghai has analyzed the activities of the Shanghai Municipal Council while failing to address adequately various materials that remain insufficiently used. The Municipal Gazette, an official magazine of the Shanghai Municipal Council, and representative English-language newspapers published in Shanghai, such as The North 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 have conducted such studies but they lack full-scale analysis. In recent years, however, scholars have made remarkable research findings in Shanghai history related to Hungarian architect Laszlo Hudec's urban work in the city. While surveying 150 years of Shanghai's urban planning, this

research attends to this gap in the literature. It builds upon Kazuhiro Iwama's and Son Ansuk's studies on the urban middle class and Tokihiko Mori's probe of Shanghai-Japan relations and Makoto Kinouchi's Shanghai history research respectively. It also explores how Shanghai Urban Construction Design and Research Institute recently published works and a collection of records of meetings for the Greater Shanghai Urban Plan, promoted from the 1920s to 1940s, provide hope for conducting more comprehensive research on Shanghai's urban planning history.

Key-words : Shanghai, Urban Planning, Hudec, Shanghai History, Shanghai Municipal Council, Greater Shanghai Urban Plan, The Municipal Gazette, The North 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

I. 들어가는 말

본고는 상해의 근현대사 역사 변천을 도시계획이라는 관점에서 각종 연구성과와 새로운 자료를 통해 검토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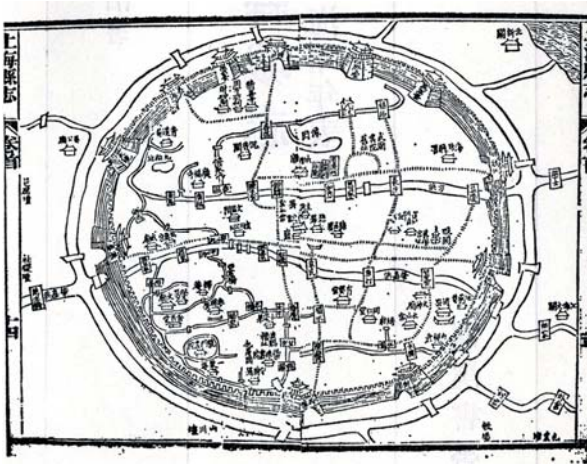
19세기 말 남경조약에 의해 중국 장난(江南)의 작은 현에 불과했던 상해는 일약 세계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상해의 발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구미 열강, 특히 영국이었다. 그러나 1920년대에 들어 상해 역사의 중심은 중국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1930년대 들어서는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상해의 근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미 열강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어떤 관련을 맺으면서 전개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사 변천의 과정은 상해의 도시계획 변천 과정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장강 하류의 델타지역에 위치한 상해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송대 후기의 13세기 후반으로 현재의 상해 현성(縣城) 주변에 촌락이 형성되고 화정현(華亭縣)에 상해진(上海鎮)이 설치되면서부터이다. 이후 원대(元代)에 이르러 상해진에는 세관의 일종인 시박제거사(市舶提舉司)가 설치되어 쌀, 면화, 차, 소금의 집산지로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명대(明代) 들어 상해는 왜구의 침입을 받음에 따라 상해의 거리를 보호할 현성이 건설되었다. 상해 현성은 베이징과 시안 그리고 난징 등에 설치된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의 성곽은 아니었지만, 전통적인 중국의 세계관을 보여주었다(<그림 1>을 참조).

청대(清代)의 건륭(乾隆), 가정(嘉慶) 연간이 되면 상해는 대두와 보리 등의 농산물과 면화의 생산지, 그리고 선박을 이용한 물류운송의 중심지로서도 주목받게 된다. 다만 장난 전체로 볼 때는 쑤저우가 가장 풍요로운 도시였으며 상해는 아직 지방의 작은 현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해의 품모는 1840년의 아편전쟁을 계기로 크게 변하게 된다. 청조는 아편전쟁에서 영국 해군의 근대적인 장비에 패배하고 홍콩의 할양과 전쟁의 배상금 지불 그리고 상해를 포함한 항구의 개항을 약속한 난징조약(南京條約)을 체결했다.¹⁾

<그림 1> 상해 현성의 지도(1872년)



출처: 成文出版社 編. 1975.

II. 구미의 도시개발과 상해 조계지

난징조약에 의해 지방의 작은 현에 불과했던 상해는 일약 세계 근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다. 청조와 영국은 상해 개항장에서 외국 상인의 거주를 인정하고 1845년에는 영국에 토지 대여를 규정하는 ‘상해조지장정(上海租地章程)’을 체결했다. 이 장정 체결에 대한 양측의

1) 상해 근대사 관련 연구는 상해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소속의 시옹위예즈(熊月之) 교수를 중심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다.(熊月之 主編. 1999, 上海通史 總15冊, 上海人民出版社).

목적은 서로 달랐다. 청조는 상해 현성의 북측에 위치한 늪지대를 외국인에게 대여하면 이들이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 기대했지만, 영국은 황푸강(黃浦江)에 면한 조계지의 입지조건이야말로 군함과 외양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좋은 조건에다 배후지에 장수성(江蘇省)과 저장성(浙江省)을 보유한 장래 교역의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평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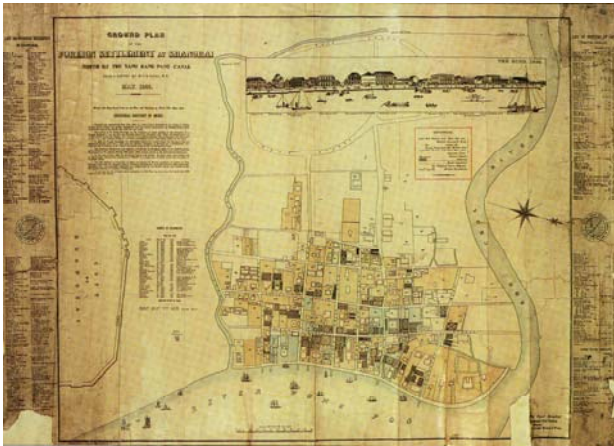
이러한 상해에 가장 먼저 진출한 외국의 상회는 이화양행(怡和洋行, Jardine, Matheson & Co.), 보순양행(寶順洋行, Dent Beal & Co.), 인기양행(仁記洋行, Gibb Livingstone & Co.), 의기양행(義記洋行, Holliday Wise & CO.) 등으로 중국과 구미 열강을 중계하는 무역회사였다.

이러한 무역회사의 상해 진출에 이어 구미열강의 선박과 상선회사도 상해에 진출했으며, 이들 무역회사의 수표를 결제하기 위해 구미 자본의 은행이 상해에 지점을 설치했다. 이들 선박의 항해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구미의 보험회사도 진출했다. 이들 외국의 상사, 은행, 보험회사 등은 영국조계지가 자리한 황푸강 연안구역(중국어로는 ‘와이탄(外灘)’이라 불렀음)에 본거지를 설치했다. 예를 들면, 영국 자본의 이화양행은 상해의 개항과 동시에 영업을 시작, 1860년에는 상해에서 조선업, 창고 경영, 방직공장, 보험업, 공공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상해를 기반으로 한 다국적기업이 탄생한 것이다(<그림 2> 참조).

영국의 조계지가 설정된 후 1848년에는 미국의 조계지가 설정되었고, 1849년에는 프랑스 조계지가 설정되었다. 이들 조계지의 도로, 항만, 위생, 전기, 수도, 경찰, 소방 설비 등의 각종 서비스는 세금을 징수하는 외국인참사회(Municipal Council)가 맡게 되었는데, 이 참사회는 중국어로 공부국(工部局)이라 불렀다. 프랑스는 1862년 공동국(公董局)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독자적인 운영과 관리 행정을 전개했다. 이후

상해 조계지의 도시개발은 세금을 납부하는 구미열강의 외국인 거류민에 의해 독점되었다.²⁾

<그림2> 상해 외국인 조계지의 평면도(1855년5월)



출처: 上海圖書館 編. 2001.

상해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경이적인 속도로 발전을 이루었다. 먼저, 1863년에 영국 조계지와 미국 조계지가 합병하여 공동조계지가 설정되었다. 공동조계지의 중심을 이루는 구역과 난징루(南京路)를 중심으로 근대적인 상업지구가 형성되었으며, 푸둥(浦東)의 양수푸(楊樹浦)와 푸시(浦西)의 차오자두(曹家渡)에는 방직, 제분, 조선 관련 기업이 집산하여 공업지구를 형성했다. 중국의 경제학자는 이들 공업지구를 근대 상해의 경제발전을 견인한 황금의 날개라고 표현했다.

1920년대 들어 이들 공업지구에는 전기와 가스가 공급되고 상하수도가 정비되는 등 근대적인 인프라 설비의 골격이 완성되었다. 조계지 변화가를

2) 근대 상해의 도시사 관련 연구는 Robert Bickers, Christian Henriot(2012)을 참조 바람.

대표하는 남경로와 주변의 상업지구에는 백화점이 들어섰으며, 영화관에서는 할리우드의 영화가 상영되어 대중오락을 즐기는 도시 중산층이 등장했다. 이때의 상해는 구미열강의 자본에 압도되었으며 영어로 출판된 상해 여행안내서는 카오스 상태의 상해를 ‘모험가의 낙원’, 일본의 문학가들은 ‘마도(魔都)’라고 형용했다.³⁾

이상에서 우리는 구미 열강에 의한 상해 도시계획을 개략적으로 살펴봤지만, 상해의 근대 도시건축 관련 가장 주목할만한 인물은 헝가리 출신 건축가 휴텍이 아닐까 한다. 그는 1918년부터 1947년까지 상해에 거주하면서 60동 이상의 건축물을 남겼으며, 그중 대부분이 현재 상해의 우수건축물 보호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휴텍(Hudec, 鄒達克)의 건축물 관련 연구는 상해 통지대학(同濟大學)의 건축학부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상해시성시계획관리국(上海市城市計畫管理局)과 상해시성시건설당안관(上海市城市建設檔案館)이 공동으로 편집한 『上海鄒達克建築(상해휴텍건축)』은 그가 남긴 건축물의 설계도면과 청사진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 휴텍 생전 설계한 건축 관련 자료는 상해시 성시건설당안관과 캐나다의 빅토리아대학교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그림3> 참조).

3) 일본의 상해사 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高綱博文(2010)과 岩間一弘(2011)을 참조 바람. 이들의 연구성과는 상해 도시사 연구 관련 구미와 일본의 선행 연구를 잘 소개하고 있다.

<그림3> 『上海鄔達克建築(상해휴덱건축)』의 표지



구미열강의 거류민에 의한 상해의 독점적인 지배가 1945년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은 수많은 행정 자료가 영어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양의 자료 가운데 아직도 사용되지 않고 있는 귀중한 자료가 많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위에서 소개한 상해의 공동조계지를 관할했던 상해공부국(Shanghai Municipal Council)은 『The Municipal Gazette』라는 공보를 1908년부터 1940년까지 발행했는데 이 자료를 충분히 이용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 잡지가 수록한 내용은 공부국이 정식 통지서는 물론이고 건설, 경찰, 위생 등의 각 부문의 통계 보고, 의사록, 예산, 결산을 총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상해 조계지연구의 1차 자료라 할 수 있다.⁴⁾

이하 이 잡지 관련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The Municipal Gazette』의 제7호에는 1908년의 예산편성과 함께 조계지에서 소비되는 육류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소, 양, 돼지고기의 세금납부 금액이 달리 책정되었다는 사실, 1908년의 경찰 예산에 간부(Officer)

4) Gale이 제공하는 『Shanghai Municipal Council: The Municipal Gazette』(1908-1942)는 가나가와대학교 도서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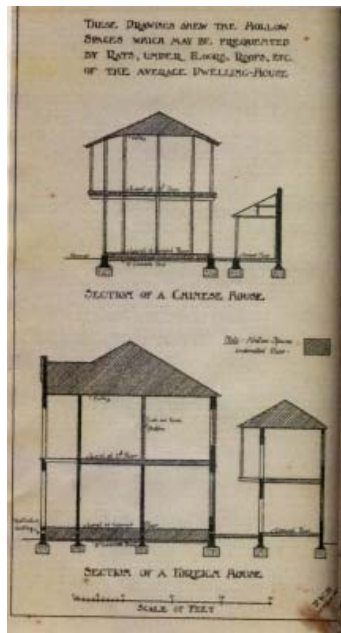
7명, 외국인(foreigner) 267명, 인도인 564명, 중국인 998명의 수당이 책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도인 경찰에게는 영어와 중국어를 모두 구사한 점이 고려되어 언어 수당이 지불 되었다 (<그림4> 참조).

또 『The Municipal Gazette』 제54호 발행 시점을 전후하여 전염병인 페스트가 상해에서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면서 페스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쥐를 박멸하고 고양이 기르는 것을 장려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그림5> 참조).

<그림4> 『The Municipal Gazette』 제7호 기사

[illegible]

<그림5> 『The Municipal의 Gazette』의 제54호 기사



상해 공부국 발행의 공보지를 이용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앞에서 언급했지만 당시의 상해를 대표하는 영자신문자료 또한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상해에서 발행된 『The North 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는 1870년부터 발행된 신문으로 기사 내용은 상해 및 중국 관련 기사뿐 아니라 일본과 조선, 동남아시아를 포괄했다. 이렇게 동아시아의 역사연구를 위한 필독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⁵⁾ 일본에선 『The North China Herald』가 상해에서 발행된 영자신문 가운데 반일적인 논조를 전개한 대표적인 신문으로 지적하지만, 동 신문이 가장 중요시한 것은 중국측이나 일본측의 논조가 아니라 구미열강이 설정한 조계지와 조계지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인 거류민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장개석이 지휘하는 국민혁명군이 군벌 타도를 목표로 북벌을 실행할 때의 신문 기사를 보자. 당시의 『The North China Herald』 신문이 가장 중요시한 것은 국민혁명군의 정의나 중국의 통일이라는 이상론이 아니라 국민혁명군이 배외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조계지 내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는 성명문이었다(<그림6> 참조).

5) 근대 중국에서 발행된 영자신문 가운데 현재 검색 가능한 신문은 다음과 같다. 『North China Herald』(1850-1941); 『The China Press』(1925-1938); 『China Critic』(1939-1946); 『China Weekly Review』(1917-1953); 『Chinese Recorder』(1868-1940); 『Chinese Repository』(1832-1851); 『Peking Daily News』(1914-1917); 『Peking Gazette』(1915-1917); 『Peking Leader』(1918-1919); 『Shanghai Times』(1914-1921); 『Shanghai Gazette』(1919-1921); 『Canton Times』(1919-1920).

<그림6> 장제스 대총통의 성명서와 풍자화⁶⁾

**MANIFESTO BY GENERAL CHIANG KAI-SHEK
TO THE POWERS**

**Appeal to Allow the Nation to Work Out Her Revolution
Without Interference from the Outside**

An important manifesto has been addressed by Gen. Chiang Kai-shek to the friendly Powers, in which the Nationalist Commander-in-Chief appeals to them to desist from supporting the Northern militarists and to maintain an absolutely neutral position so far as China's civil warfare is concerned.

Gen. Chiang, in the manifesto, says:—

"China's freedom and independence are matters which involve the peace of the whole world. This is a matter which all foreigners and Chinese with any understanding at all will readily realize. China has huge territories, the world's largest population and immense natural resources of immeasurable value, but she does not have an equal and independent position in the family of nations. Certain selfish and aggressive persons wish to create trouble in the Far East, and to cause another breach of the world's peace. They are waiting for an opportunity to begin their machinations in order to carry out their aggressive plans. All will understand this.

The Importation of Militarism

"During the past years China's civil warfare has continued without cessation because the militarists have received the support of the imperialists. Arms and ammunition are constantly being imported

plans for the anti-Northern expedition with a view to settling the Chinese question ourselves. Directly, it is a matter of China's self-determination; indirectly, it is a matter which involves the peace of the world.

"Militarism is an obstacle to world peace. Militarism is the vanguard of imperialistic aggression. If militarism is not exterminated, China will never have peace. The Chinese people will never be happy. The quarrels of the Powers in China will never cease. The aim of the Kuomintang and the revolutionary forces, therefore, is to fight for China's freedom and equality. Our first step will be to drive out the militarists. In order to carry out this, all obstacles must be wiped away. The anti-Northern expedition, therefore, cannot be dropped. Ordinarily, a national revolution is a matter for that nation only, and foreigners should not be involved. Ordinarily, everybody wants freedom and equality. The Chinese Kuomintang is fighting for these two objects. There is no ground for foreign suspicion. I say this because the Northern militarists have been spreading rumors to hoodwink the friendly Powers by alleging that our troops are anti-foreign. We hope our foreign friends will not be misled by them.



『The North China Herald』의 풍자화를 담당한 만화가는 백제 러시아인 사파조(Sapajou)였다. 풍자화의 “L'appetit vient en mongeant(식욕은 먹을수록 왕성해진다)”는 중화민국 정부가 한커우(漢口)의 영국 조계지를 회수하고 프랑스 조계지를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풍자하고 있다.⁷⁾

앞에서 상해의 도시건축 관련하여 헝가리 출신 건축가 휴텍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언급했는데 그는 주택 설계에도 참가했다. 휴텍이 참가한 주택단지 컬럼비아씨클 관련 기사 또한 영자신문 『The China Press』에 빈번히 등장한다(<그림7> 참조). 상하이 아시아 부동산회사(Shanghai Asia Real Estate Company)는 이 주택단지의 토지개발에

- 6) 『The North 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 1928.4.14.
- 7) 사파조에 관해서는 Nenad Djordjevic(2010)을 참조 바람. 사파조는 러시아혁명을 피해 상해로 이주한 후,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일세를 풍미하는 풍자만화가로서 활동했다. 중일전쟁을 전후하여 그가 그린 풍자화는 일본의 중국침략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아낸 것으로 유명하다.

착수하여 1928년에 설계를 완료했다. 1932년에 완성된 컬럼비아써클의 단독주택 36개동은 당시로선 상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디자인이 도입되었다는 선전과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 판매되었다. 상해의 영자신문에는 이러한 건축, 부동산, 빌딩 임대 관련 기사가 활발히 게재되고 있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7> 『The China Press』. 1932.7.21.



상해 근대사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자료는 신문뿐 아니라 각종 잡지도 사정은 같다. 도시계획과 건축 관련 잡지로 첫번째로 꼽히는 것이 『Far Eastern Review: engineering, commerce, finance』이다.⁸⁾ 이 잡지는 1904년 마닐라에서 창간되어 1942년까지 발행된 것으로 동남아시아 각지와 중국의 상해, 텐진, 칭다오, 일본의 요코하마, 식민지 조선의 인천, 부산 등에 걸친 항만, 도로, 철도 관련 도시건설 기사가 풍부하게 게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 잡지 1922년 1월호의 1면 기사는 중국 국내 자동차 시장의 가능성을 분석한 것이다. 중국 상해에 수입된 트럭은 1912년 116대에서 1920년에는 1,397대로 증가한

8) 이 잡지 관련 서지 정보는 <https://catalog.hathitrust.org/Record/100159939> 을 참조.

데이터를 제시하고, 자동차 보급을 위해서는 근대적인 도로건설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같은 호의 특집 기사인 ‘상해 자동차쇼(The Shanghai Automobile Show)’는 상해 자동차 쇼에 출품된 자동차 관련 회사의 제품과 전시회장을 소개한 것으로 당시 상해에서 어떤 자동차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는지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사이다(<그림8> 참조).

아시아를 대표하는 ‘동경모터쇼’가 처음으로 개최된 것이 1954년이
고, 중국 개혁개방 이후 ‘상해모터쇼’가 처음으로 개최된 것이 1985년
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1922년 상해에서 개최된 자동차쇼의 전시행사는
시대를 앞서간 것임이 틀림없다.

<그림8> 『Far Eastern Review: engineering, commerce, finance』 .
1922년 1월호 기사



이상에서 구미열강이 상해의 도시발전 역사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었는지 간단히 언급했는데, 다음 절에서는 중국인이 상해의 도시발전 역사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III. 중국인에 의한 ‘대상해도시계획’

1920년까지 상해의 조계지에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지배한 것은 구미 열강이었지만, 1920년대 들어 그러한 구미 열강의 우세 국면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우선, 중국인 가운데 근대교육을 받은 새로운 지식인층이 등장한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구미 각국이 제1차 세계대전의 혼란에 빠진 것을 기회로 중국이 공전의 호경기를 구가한 것도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주었다. 중국에서 근대적인 기업가가 등장하고, 도시에서는 생활을 향유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도시 중간 계층이 등장했으며, 산업노동자가 성장하면서 이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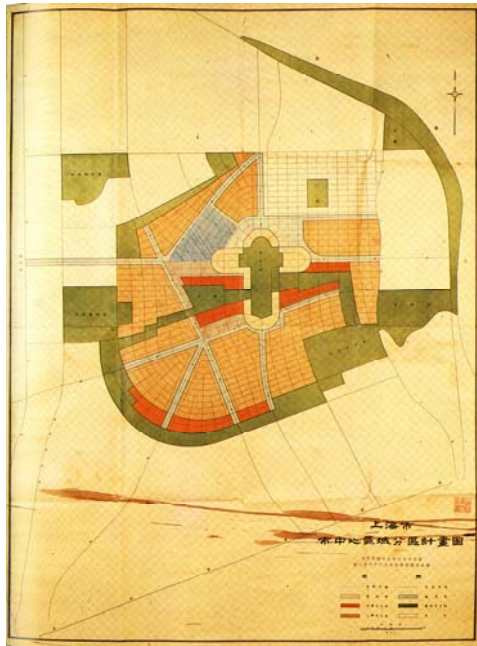
이러한 중국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 1927년에 난징국민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장제스가 지도하는 중국국민당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국가건설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상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상해특별시 정부가 1927년 발족하면서 구미 열강 주도로 이뤄져 온 종래의 상해 도시개발 방식을 탈피, 대상해도시계획(大上海都市計劃)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상해의 중심이 되어버린 지역과 난징루(南京路)를 크게 감싸는 지역을 포괄했다. 대상해도시계획의 중심 내용은 상해의 외항에 해당하는 우쑹(吳淞)에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고, 조계지를 포함한 상해시 중심구 이외에 항만구, 행정구, 상업구, 공업구를 설치함으로써 구미열강에 빼앗긴 중국의 권리를 회수하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⁹⁾

대상해도시계획은 1929년 시 중심구의 토지구매에서 시작됐다. 1931년

9) 대상해도시계획에 관해서는 上海市城市計劃設計研究院 編(2014)을 참조 바람. 이 자료는 대상해도시계획의 입안 과정과 도시계획을 논의하는 회의 기록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를 통해 중국측이 당시 이 계획을 얼마나 야심차게 추진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에는 간선도로의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1933년에는 상해특별시청사가 완성되었다. 그 이외에 도서관, 박물관, 운동장 등이 순차적으로 건축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일본의 침략 전쟁이 본격화되는 제2차 상해사변을 계기로 중단되었지만, 이 시기에 완성된 비행기 형태의 도로배치와 방사선상으로 확대되는 도로 건설계획은 현재의 상해 도시계획에 기본적으로 계승되었다(<그림9>를 참조).

<그림9> 상해시 중심구역 분구(分區) 계획도(1930.7)



출처: 上海圖書館 編. 2001.

이 대상해도시계획을 담당한 부서가 바로 상해시 공무국이며, 이 공무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 공무국장을 담당한 선이(沈怡)였다. 선이는 독일의 드레스덴공과대학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후,

1927년부터 1937년까지 상해의 공무국과 상해시중심구역건설위원회(上海市中心區域建設委員會)의 책임자로 일했다.¹⁰⁾

이상에서 중국인에 의한 상해 외형을 변화시킨 대상해도시계획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하에선 상해의 도시 내면을 구성하고 있던 거주자 가운데 중간계층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919년의 5.4운동과 1925년의 5.30운동을 중심으로 중국근대사를 설명해 왔던 기존의 연구로는 한가지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즉, 5.4운동을 통하여 학생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였고, 5.30운동을 통해 노동자가 등장하였고, 이들을 지도하는 대중조직으로서 중국공산당이 활동을 개시했다는 것을 역사학계의 일반적 시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만으로는 1920년대, 1930년대에 등장한 도시 중간계층의 활동을 증명해낼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이와마 가즈히로(岩間一弘, 2012)의 『상해 대중의 탄생과 변모: 근대 신중간층의 소비·동원·이벤트』이다. 이와마는 상해에서 대중 및 소비사회가 등장한 것을 신문, 잡지에 등장하는 광고와 상해시의회의 선거활동, 집단결혼식의 미디어 이벤트를 통해 분석했다(岩間一弘, 2012).

그의 연구를 통해 상해에서 도시 중간층이 등장한 것이 규명되었다고 한다면, 최근 『良友』 화보라는 대중잡지를 활용한 연구는 도시 중간층의 일상생활이 어떠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낸 연구라고 할 수 있다(<그림10> 참조). 종래의 중국 근대사연구에서 1920년, 1930년대를 논할 때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잡지로 거론된 것은 『新青年』, 『每週評論』, 『新潮』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과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혁명을 논하는 언론만으로는 도시 중간층과 도시민의 구체적인

10) 선이에 관해서는 李瑞 冰河 編(2016)을 참조 바람.

생활을 엿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良友』 화보의 연구성과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孫安石 等編. 2018).

<그림10> 孫安石 等編(2018)의 표지



이 연구성과는 『良友』 화보라는 대중잡지를 소재로 1920, 1930년대 상해에 소개된 미국의 대중문화(할리우드영화, 댄스와 뮤지컬, 여성의 복장)가 상해에 고스란히 소개된 과정을 풍부한 도판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왕조체제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라는 공화정치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 그리고 미용과 복장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음악과 미술, 그리고 사진이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어떻게 성장하였는지를 『良友』 화보를 통해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IV. 일본인의 상해 지배와 도시계획의 왜곡

상해의 도시발전에 일본의 영향이 대규모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행사된 것은 1937년의 중일전쟁 개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제2차 상해전쟁에서 승리한 후, 1937년 12월 일본의 하수인을 대행하는 상해 대도정부(上海大都政府)가 발족했다. 일본은 상해를 부흥시킨다는 명목 하에 상해대도정부와 합작하여 상해항산주식회사(上海恒産株式會社)를 설립하고 일본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킨 대상해도시계획을 추진하려 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8년 9월 6일 개최 일본 내각의 각료회의에 상정된 회의 안건에 ‘상해도시건설기본요강(上海都市建設基本要綱)’이 포함되어 있었다.¹¹⁾ 이것을 봐도 중일전쟁이 얼마나 상해 도시계획에 많은 왜곡을 불러일으켰는지 알 수 있다.

일본과 상해의 부분적인 관계는 메이지(明治)시대 이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도 지면관계상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게 이뤄졌는데, 그 가운데 일본의 상해사연구회가 발행한 관련 논문집과 高綱博文(2010)의 상해 거주 일본인 사회를 다룬 선행연구를 통해 전체적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¹²⁾ 일본과 상해 혹은 중국과의 관련을 연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서 각 기업에서 발간하는 사사(社史)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에서는 최근 10년간 외교문서의 인터넷 공개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시아역사자료센터(<https://www.jacar.go.jp>)인데 이 기관에서 공개한 외교문서, 육해군의 방위문서, 일본 국립공문

11) 일본 내각 제3위원회의 기록에 대해서는 다음의 인터넷 자료를 참조 바람.
(<https://www.digital.archives.go.jp/das/image/M0000000000000288753>)을 참조.
12) 日本上海史研究會 編(2001); 日本上海史研究会 編(2009); 高綱博文(2010); 高綱博文 等(2016).

서관 소장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성과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의 활용을 통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일본정부가 어떠한 틀을 가지고 중국을 통제하려고 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 혹은 관료의 움직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민간기업 혹은 현지 체재 거류민의 동향이다. 이러한 민간인의 활동을 파악하는 연구자료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이 각 기업이 발행한 사사이다.

일본에서는 이들 사사를 전문으로 수집하는 도서관이 있을 정도이다. 특히, 가나가와 현립 가와사키도서관(神奈川県立川崎圖書館)이 유명하다. 예를 들면,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상해와 일본의 경제관계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기업은 방직공장이었다. 공장의 규모가 상당히 컸던 동양방직(東洋紡織), 닛신방직(日清紡織), 토요타방직(豊田紡織)의 현지공장은 자신의 사사를 편찬했다(<그림11> 참조).¹³⁾

한편, 일본인의 상해에 관한 관심이 매우 특별했다는 것은 『上海案内』라는 여행 소개 책자가 1913년 처음으로 발행된 이후 매년 개정증보판이 발행되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감수하고 해설을 붙인 『近代中國都市案内集成』은 상해 관련 여행 안내용과 상업 안내용으로 발행된 서적을 모아 영인 출판한 자료이다. 이들 자료를 통해 근대 일본인의 상해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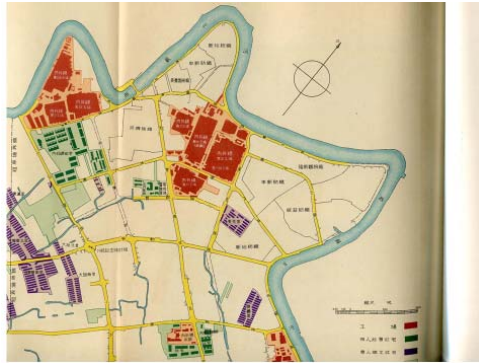
일본의 상해 관련 연구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연구성과는 기노우치 마코도(木之内誠)가 편집과 작성을 담당한 지도집 『上海歴史ガイドブック(상해역사가이드북)』이다. 이 책은 아편전쟁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상해의 발전을 구시가지와 1990년대 이후에 개발된 지역을

13) 일본 기업의 중국 방직공장 진출에 관해서는 森時彦 編(2005)을 참조 바람.

14) 孫安石 監修. 2011, 近代中國都市案内集成: 上海 編 全12冊, ゆまに書房. 상해편이 발행된 이후 베이징, 톈진, 다롄, 타이완 편 등이 연이어 발행되었다.

함께 표기한 역작이다. 1999년에 초판 발행 후 2011년에 도시공간을 입체적으로 표시한 증보개정판을 다시 발행하여 연구자뿐 아니라 상해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독자에게도 높은 평판을 얻었다 (<그림12> 참조). 필자는 이 지도집을 휴대하면서 상해를 조사했으며, 중국인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상해 조사의 필독서로 평가받을 정도이다.

<그림11> 상해 소주하(蘇州河) 주변의 일본 방직공장의 지도



<그림12> 『上海歴史ガイドブック(상해역사 가이드북)』의 표지



V.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의 상해 도시계획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싸운 중화민국은 1945년 8월 최종적으로 승전했다. 장제스를 수반으로 하는 중국국민당에 의해 조직된 중화민국 정부는 1946년 5월 전시 수도였던 중경에서 남경으로 천도하면서 상해를 세력하에 두게 되었다. 중화민국 정부가 무엇보다 서둘러야 할 것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상해의 도시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상해시장인 우귀전(吳國禎)을 주임으로, 상해시 공무국장(工務局長)인 자오주강(趙祖康)을 위원장, 리차드 폴릭(Richard Paulick)을 집행 비서로 한 상해시도시계획위원회(上海市都市計劃委員會)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1946년 7월에 『大上海都市計劃草案報告書(대상해도시계획초안보고서)』(初稿)를 완성하였으며, 1948년 2월에는 이 보고서의 재고(二稿), 1949년 6월에는 이 보고서의 3고(三稿)에 해당하는 『大上海都市計劃總圖(대상해도시계획총도)』를 완성했다. 이 보고서는 상해 주변에 위성도시를 건설할 것과 도로 교통망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1945년 8월 이후의 중국에 관해서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강조되어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의 내전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처럼 국공내전 시기에도 상해의 도시개발계획이 착실하게 검토되고 있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국공내전 시기 상해의 도시계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상해시 공무국장을 맡고 있던 자오주강이었다. 그는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유학했으며, 귀국 후에는 교통부에서 도로건설 관련 업무에 종사한 후, 1945년부터 상해시 공무국장에 취임했다. 자오주강은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에도 상해시인민정부의 공무국장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상해시시정건설위원회(上海市市政建設委員會)의 주임, 상해시규획건설관리국(上海市規劃建設管理局)의 국장을 역임한 후, 상해시 부시장을 맡았

기 때문에 그야말로 1949년 마오쩌둥(毛澤東)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상해 도시계획의 산증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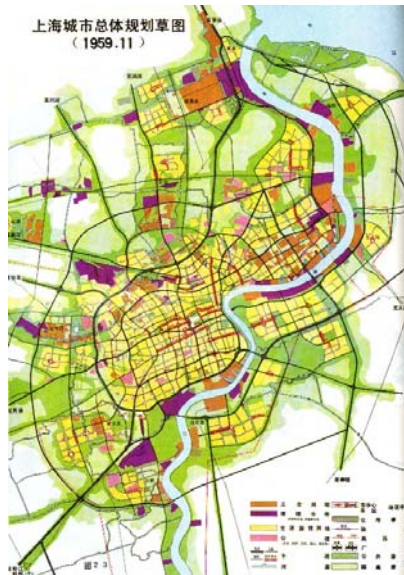
신중국 성립 이후 상해의 도시계획은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중국의 국무원(國務院)은 1949년 2월 소련의 도시계획 전문가를 상해에 초청했다. 이때 제출된 의견서가 소련의 도시계획 이론에 기초해 작성된 『關於上海市改建及發展前途問題(상해시 개조건설 및 발전장래 문제에 관하여)』였다. 이 의견서에 의하면, 소련의 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기본 인구(공업, 항만, 철도 등의 산업노동자) 30—35%, 서비스 종사 인구(각종 기관, 단체, 상업, 공무원, 자유 직업 등) 18—23%, 피부양 인구 45—50%인데 반해, 상해는 기본 인구 13.2%, 서비스 종사 인구 34.7%, 피부양 인구 52.5%의 구성이었다. 소련의 도시와 비교할 때 상해는 서비스 종사 인구가 돌출하는 소비형 도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소비형 중심의 도시에서 생산형 중심의 도시로 개조하는 것이 당시 사회주의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육성해 기본 인구의 비중을 높이려 했다. 또한, 신중국은 1953년에도 소련의 도시계획 전문가인 마진을 초청하여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기술을 도입했다. 이때 제출된 의견서가 『上海市總圖規劃示意圖(상해시총도규획설명도)』이다. 이 의견서의 핵심은 상해의 항만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 국외의 원양 항로와 내륙 수운을 전담하는 항구를 건설하여 조선업의 육성에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질적인 도시계획의 도입은 중국과 소련의 '밀월'이라고 하는 정치상의 우호 관계를 배경으로 한 것이어서 중소관계가 악화되면 단번에 무너져 버릴 우려가 있었다. 중소관계가 악화된 1958년

15) 자오주캉에 대해서는 陶柏康(1998)을 참조 바람.

들어 상해시규획건축관리국(上海市規劃建築管理局)은 『上海市1956年~1967年近期規劃草案(상해시1956년~1957년단기규획초안)』을 책정하고, 중국의 독자적인 상해 도시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1958년과 1959년에는 『上海市1958年城市建設初步規劃總圖(상해시1958년성시건설초보규획총도)』와 『上海城市總體規劃草圖(상해성시총체규획초도)』가 각각 계획되었다. 이들 도시계획의 공통점은 상해시 주변에 새로운 공업지구를 설치, 주택건설과 녹지환경 보호에 주안점이 두어졌다(<그림13> 참조).

<그림13> 상해성시총체규획초도(1959년 11월)



출처: 上海社會科學院. 1999.

당시의 도시계획이 목표로 한 것은 “생산설비의 적절한 배치와 인민의 생활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공업부문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높은

정밀기계 부문의 생산력을 높여 상해를 문화, 과학, 예술 등의 각 방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아름다운 도시의 하나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계획은 문화대혁명이라는 동란을 겪으면서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VI. 맺는말-개혁개방 이후 상해의 도시계획

10년에 걸친 문화대혁명은 상해의 도시건설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도시기능은 마비되었고, 인프라의 건설은 중단되었으며, 도로와 교통의 건설도 계통적인 연결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주택과 녹지를 포함한 생활환경의 열악한 상태가 개선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이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상해가 기사회생활 기회였다. 1982년에 도시계획 『上海市城市總體規劃綱要(상해시성시총체규획강요)』가 책정되었다. 이 도시계획은 2000년 상해의 인구를 1,300만 명, 유동 인구를 50만 명으로 예상하여 지금까지 개발하지 못한 포동 신구를 새롭게 개발하고 우쑹(吳淞), 진산(金山), 민항(閔行)을 위성도시로 집중개발하는 것이 골자였다. 여기에 열악한 주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에 불과한 1인당 평균 거주 면적을 2000년에 8㎡로 개선한다는 목표도 세워졌다. 교통부문은 낙후된 항만시설을 개조하여 컨테이너 선박이 정박할 수 있도록 하고, 상해와 닝보(寧波), 항저우(杭州)를 연결하는 철도노선의 복선화도 계획되었다.

이러한 개혁개방 초기의 도시계획은 1984년에 다시 『上海市城市總體規劃方案(상해시성시총체규획방안)』으로 수정, 보완되었다. 예를 들면, 공업부문은 각 지역을 특정 공업지구로 조성하려 했는데, 금속공업은 오쑹,

기계공업은 민항과 안팅(安亭), 전자공업은 자딩(嘉定)과 민항, 조선공업은 와이가오차오(外高橋), 방직공업은 진산웨이(金山衛)에 각각 배치했다. 상해와 교외를 연결하는 교통망 정비를 위해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계획도 결정되었다. 상해의 항공교통은 홍차오공항(虹橋空港)의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시기능의 확대에 따라 상해 시내에 자리한 기존의 룡화(龍華) 비행장, 장완(江灣) 비행장 등을 철거하는 계획도 본격적으로 검토되었다.

1980년대 들어 중국의 개혁개방을 견인하는 상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등장한 것이 황포강 동쪽에 자리한 푸둥신구(浦東新區)의 도시개발계획이었다. 물론 푸둥신구의 개발은 종래의 도시계획에서도 빈번히 등장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1985년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푸둥신구의 개발계획은 사상 최대의 규모에 달했다. 1992년 7월 완성된 『上海市浦東新區總體規劃』에 따라 와이가오차오 보세구(물류·해운), 진차오(金橋) 수출가공구(제조), 루자꾸이(陸家嘴) 금융무역구(금융), 장강하이테크기술구(張江高科技技術區, 하이테크연구개발), 화사문화여유구(華夏文化旅遊區, 레저와 문화) 등의 개발구가 설정되었으며 지금 현재에도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

상해의 교통망 정비도 급속히 추진되어 1994년에는 내환선(內環線)이 1995년에는 남북고가도가 전면 개통되었고, 지하철 건설도 시작되었다. 1999년에는 아시아의 허브공항을 목표로 한 상해 푸둥국제공항이 영업을 시작했다. 이제 세계의 텔레비전이 소개하는 상해의 이미지도 이전과 많이 바뀌었다. 상해의 구 조계지와 난징루의 야경에서 루자꾸이 금융무역구에서 넥타이를 맨 샐러리맨 중국인이 빈번히 등장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상해 근현대 변천의 역사를 도시계획과 관련지어 최신의 연구성과를 활용하면서 문제점을 검토했다. 신문 지상에 소개되는 중국

관련 최신의 보도는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마찰, 홍콩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중국의 이미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보도가 중국의 실체 일부를 보도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중국의 경제발전이 세계의 경제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는 예상 또한 부정할 수는 없다. 향후 중국의 발전이 어떻게 전개되든 상해라는 도시가 위치한 지정학상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중국경제를 논하는 많은 저서가 양쯔강을 거대한 용으로 비유할 때 상해를 그 ‘용두(龍頭)’로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 陶柏康. 1998, *中國公路泰斗: 舊上海最後一任市長*, 復旦大學出版社.
- 熊月之 主編. 1999, *上海通史 總15冊*, 上海人民出版社.
- 上海市城市建設檔案館 編. 2008, *上海鄒達克建築*, 上海科學普及出版社.
- 華霞虹. 2013, *上海鄒達克建築地圖*, 同濟大學出版社.
- 上海市城市計劃設計研究院 編. 2014, *大上海都市計劃*, 同濟大學出版社.
- 李瑞·冰河 編. 2016, “沈怡: 中國近代城市規劃的實踐者”, *華中建築雜誌* 第11期.
- 成文出版社 編. 1975, *同治11年刊本*, 臺灣: 影印
- 上海圖書館 編. 2001, *老上海地圖*, 上海畫報出版社
- 上海社會科學院. 1999, *上海城市規劃志*,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 木之內誠 編. 1999-2011, *上海歷史ガイドブック*, 大修館書店.
- 日本上海史研究会 編. 2001, *上海: 重層するネットワーク*, 汲古書院.
- 森時彦 編. 2005, *在華紡と中國社會*, 京都大學學術出版會.
- 日本上海史研究會 編. 2009, *建國前後の上海*, 研文書店.
- 高綱博文. 2010, 「國際都市」上海のなかの日本人, 研文出版.
- 高綱博文 等. 2016, *戰時上海のメディア: 文化的ポリティクスの視座から*, 研文出版.
- 孫安石 監修. 2011, *近代中國都市案内集成: 上海 編 全12冊*, ゆまに書房.
- 孫安石 等編. 2018, *上海モダン: 『良友』畫報の世界*, 勉誠出版.
- 岩間一弘. 2011, *上海近代のホワイトカラー: 揺れる新中間層の形成*, 研文出版.
- 2012, *上海大衆の誕生と變貌: 近代新中間層の消費・動員・イベント*, 東京大學出版會.

- Robert Bickers, Christian Henriot. 2012, *New Frontiers: Imperialism's New Communities in East Asia, 1842-1953*, Manchester Univ. Press.
- Nenad Djordjevic. 2010, *Sapajou: The Collected Works of Old Shanghai's Greatest Cartoonist The Early Years*, Earnshaw Books.

〈온라인자료〉

캐나다 빅토리아대학 도서관:

(<https://www.uvic.ca/library/featured/collections/about/LaszloHudec.php>)

아시아역사자료센터(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https://www.digital.archives.go.jp/das/image/M0000000000000288753>).

“The Far-Eastern review; engineering, commerce, finance”.
1904-1942, Manila.

Shanghai Municipal Council. The Municipal Gazette, 1908-1942.

<https://catalog.hathitrust.org/Record/100159939>